

기록으로 기억하는 6.25전쟁



정수진 | 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끝나지 않는 전쟁... 6.25

1999년 전국 역사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25 전쟁은 '과거 2천년 동안 일어난 한국사 10대 사건'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 특히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의 6.25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어떠한가? 2009년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7.4%가 전쟁 발발 연도를 몰랐고,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이 '북한이 아니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 14.6%에 달했다.

지나간 과거 사실에 대한 정확한 날짜 기억하기가 뭐가 그리 중요한 거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6.25 전쟁은 세계사적으로 20세기 가장 치열한 전쟁인 동시에, 한민족에게는 비극적인 골육상잔의 현상이었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현재까지도 휴전 상태인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25 전쟁 관련 소장기록물 현황

국가기록원이 각급 공공기관에서 이관 받아 보존하는 6.25 전쟁 관련 기록물은 일반문서 2,083건, 대통령기록물 130건, 시청각기록물 3,207건, 정부간행물 126권, 해외수집기록물 3,580건, 행정박물 64점으로 총 9,190건/권/점이다.

관련 기록물은 전쟁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생산되었고, 그 전후 시기에 생산된 기록물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기록물은 6.25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된 8.15 광복 후 한반도의 분단, 6.25 전쟁 발발부터 휴전 협정 과정, 전쟁 결과 등과 6.25 전쟁과 관련된 국제 정세 및 관계,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6.25 전쟁 관련 소장기록물 유형별 현황(‘10년 3월 현재)〉

(단위 : 건/점)

유형	일반 문서	대통령 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정부 간행물	해외수집 기록물	행정박물	계
			사진류	동영상류	오디오류	슬라이드				
			2,822	361	3	21				
건수	2,083	130	3,207				126	3,580	64	9,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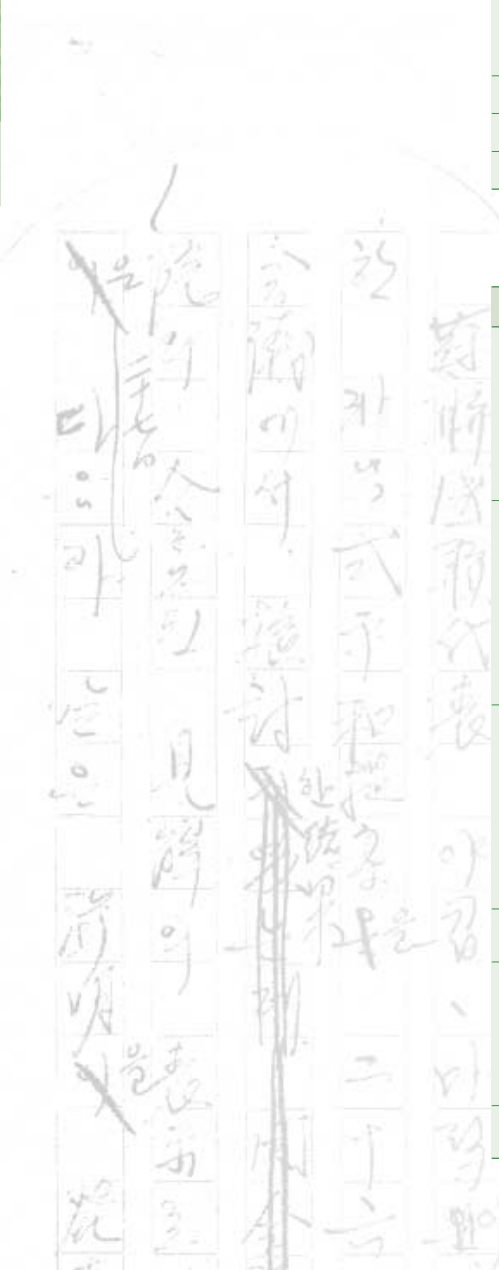
〈6.25 전쟁 관련 소장기록물 생산기간별 현황〉

(단위 : 건/점)

유형	기간	1949년 이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이후	미상	계
		계	415	2,142	2,259	884	2,021	1,422	47
일반문서		80	151	723	274	350	505	-	2,083
대통령기록물		1	58	36	7	5	23	-	130
시청각 기록물	소계	49	687	759	406	577	683	46	3,207
	사진류	21	646	735	406	545	453	16	2,822
	동영상류	5	41	24	-	32	229	30	361
	오디오류	2	-	-	-	-	1	-	3
	슬라이드	21	-	-	-	-	-	-	21
정부간행물		-	-	-	-	-	125	1	126
해외수집기록물		278	1,243	720	196	1,087	56	-	3,580
행정박물		7	3	21	1	2	30	-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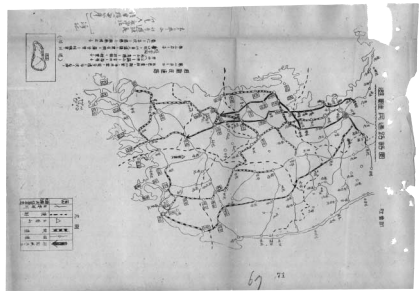
〈6.25 전쟁 관련 소장기록물 유형별 주요 내용〉

유형	주요 내용	특징
일반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전쟁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부역자 등 조사서·명단 전시 재정 및 예산, 피난민 관리, 피해지역 복구 조약 및 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 휴전협정문 등) 공비토벌, 양민학살 진상조사, 반공포로 송환 및 처리 6.25참전 유공자 공훈 및 예우, 6.25전쟁 기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회의의 관련 문서(43%) 중앙(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외교통상부 등) 및 지방행정기관 생산기록
시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전개과정(북한군 남침,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 정전협정 등) 폭격 및 파괴(가옥, 교량 등), 민간인학살, 반공포로, 배라 UN참전국 활동 및 기념비 생활상(피난지, 전쟁고아, 초중고등 학교 수업, 장터모습 등) UN참전국 활동 및 기념비 6.25전쟁 기념행사, 이산가족상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홍보처 생산기록 원판필름 및 간행물 게재 사진 촬영본 등
대통령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인력 및 물자 지원·관리 경제안정정책(인플레이션, 토지개혁, 통화조치, 세금 등) 전시 군인 및 국민 독려 담화문 및 연설문 전시 생활개선 및 보건관리 양민학살 책임자 처벌, 포로 심사 및 처리 UN 및 UN참전국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비서실 및 중앙행정기관 생산기록
정부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전쟁사, 해외수집자료 사료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교육부 등 생산 간행물
해외 수집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전황 관련 신문 칼럼·논설·사설·카툰 및 보도자료(21%) 6.25전쟁 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 결정 회의 회의록 및 비망록 6.25전쟁 시 북한지역 전시 상황(동영상) 남한 내 유엔활동 및 남한 생활상(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수집기록물 대다수(82%) 그 외 러시아, 영국, UN
행정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표, 포스터, 훈장 	





● 1950년 한강철교를 따라 한강을 건너는 북한군 모습



● 피난민 소개 및 구호요강 승부에 관한 건, 사회부(1950)

피난민 소개 원칙(피난민 통로지시, 피난 장소 지정, 피난 지구별 수용 계획) 및 구호 요령(피난민증 발행 및 등록 실시, 구호 실시 규정, 수용소 운영 요령)을 제정·보고한 문서이다. 특히 목표로 작성된 '피난민 통로지시'에는 피난통로가 제1코스, 제2코스, 제3코스별로 상세히 작성되어 있다.



● 1950년 6월 26일 UN긴급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38선 이북 철수를 결의했다.

○○○ 기록 속의 6.25 전쟁

6.25 전쟁 발발 ...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40분

6.25 전쟁은 북한군이 소련고문단과 함께 작성한 작전 계획에 따라 1950년 6월 25일 남침함으로써 북한군 대 한국군의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병력과 화력이 우세한 북한군은 기만 전술의 차원에서 제기된 평화 공세에 힘입어 한국군을 기습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북한군의 공격을 받은 한국군 전방 사단들은 사단장들이 불과 며칠 전 단행된 인사 이동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거나 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한국군은 소련이 북한군에 공급해준 T-34 탱크를 멈추게 할 무기를 갖지도 않았고,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하였다. 한국군은 취약한 전력으로 인해 기습의 충격력을 흡수하지 못하였고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상실하였다. 한국군은 도강 수단도 없이 경향 중에 한강을 건너 방어선을 형성하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반격한다는 막연한 목표로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기습에 성공하고서 서울에서 3일간 지체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보조 공격 부대가 춘천 지역에서 작전 차질을 빚음으로써 서울을 점령한 주력 부대와 협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남로당의 대규모 봉기를 기대한 점, 그리고 한강 도강을 위한 장비가 부족했던 점, 서울 점령 이후 자축 분위기에 젖어 있었던 점 등도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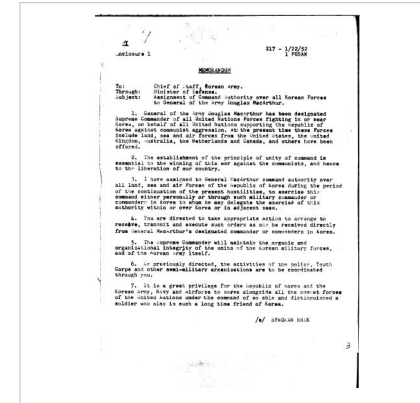
전쟁 초기 한국 정부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민심 동요를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비상 계획이나 철수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데 분주하였다. 정부 지도자와 관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서울 시민을 포함한 피난민들은 피난 보따리를 '매다 풀다'를 반복하면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점령 초기 미처 피난하지 못한 많은 우익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인민재판을 받아 희생되었고 또 한때 좌익에 가담하였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처형되기도 하였다. 전쟁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살인·방화·약탈 등은 확대 보복과 무차별적인 연쇄 반응을 가져왔으며, 민족간의 이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가를 극렬하게 보여주었다.

유엔군 반격 및 북진... 낙동강 방어 전투,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북으로의 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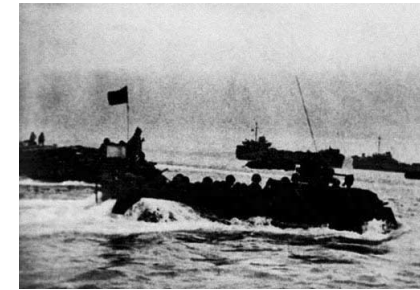
유엔은 한국군을 도와 북한군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국제평화를 유지한다고 결의하였고, 그 집단안전보장조치에 따라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미군 제24사단 선두 부대인 스미스 부대가 도착하여 1950년 7월 4일 최초로 평택-제천-울진을 잇는 선에서 무질서하게 철수하는 한국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이 유엔군사령관의 단일 지휘 하에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점에 비추어 7월 14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한국군은 법적으로는 유엔군이 아니지만 실질적



● 국군 통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각서 및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회한, 사회부, 외교통신부(1950)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 미 대사를 통하여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알린 각서 및 서한이다. 맥아더는 7월 16일 무초 대사를 통하여 '한국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엔군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답신을 보내 왔다.



● 1950년 9월 15일 미해병 인천상륙작전 개시



● 1950년 9월 19일 38선을 돌파하여 평양에 입성한 국군 및 UN군을 환영하는 시민들 모습

으로는 유엔군의 일원처럼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제 전쟁은 북한군 대 유엔군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성격의 전쟁으로 변모되었다.

유엔군은 한강 방어선에서부터 낙동강 방어선까지 미군과 유엔군의 증원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하여 공간을 양보' 하는 이른바 지연전을 수행하였고, 이어 부산교두보인 낙동강 방어선에서 사활을 건 방어 전투를 치렀다. 그리하여 마침내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였다.

낙동강선 방어에 성공한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반격 작전으로 전환하여 9월 말, 전쟁 발발 97일 만에 실지를 되찾고 전쟁 전 현상을 회복하였다. 유엔군은 성공적인 우회기동으로 북한군의 전선을 단숨에 절단하였으며, 뒤이어 실시한 돌파와 반격 및 추격 작전은 전사(戰史)상 가치 경이적이라 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이때 북한군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채 북으로 퇴각하였으며 일부의 패잔병들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으로 잠입하여 게릴라가 되었다.

한국군이 38도선에 도달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한국군 통수 계통으로 38도선 북진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는 "38도선은 이미 북한군의 남침 시 허물어졌으므로 북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이 기회에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10월 1일 한국군 제3사단이 먼저 38선을 넘어 진격하고 이어 유엔군의 북진 작전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고 청천강선으로 진출하였다.

10월 24일 청천강을 확보한 유엔군은 한·만 국경선을 향한 총 공세를 폈다. 맥아더 장군은 국경선 부근에서는 한국군만을 운용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마저 제거하고 모든 부대로 하여금 압록강, 두만강으로 진군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유엔군이 혜산진과 청진을 점령한 상황에서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대거 개입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은 다시 한번 크게 바뀌었다.

중공군 침공 및 유엔군 재반격... 톱질 전쟁의 연속

중국은 유엔군의 38도선 북상을 확인한 직후 몇 차례 소련 및 북한과 논의한 후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爲國)' 라는 목표로 최종 참전을 결정하였다. 이제 6.25 전쟁은 조·중 연합군 대 유엔군의 전쟁, 사실상 중공군 대 유엔군의 전쟁으로 바뀌었고 전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군사 지원 등을 고려하면 전쟁의 상황은 냉전 구조 하의 공산 진영 대 자유 진영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공군은 대부대를 투입하여 유엔군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은밀히 밀려들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한국군은 계속 진격하여 제6사단 선두부대가 압록강변 초산을 점령하였고 서부 지역의 미 제24사단은 신의주 남방 정거장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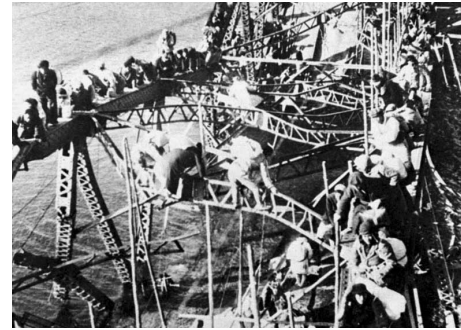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전황을 오판하여 중공군의 참전 목적과 작전 의도를 정확히 간



● 1950년 10월 26일 압록강 초산에 도달한 6사단 7연대 한 병사가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은 모습



● 1950년 12월 6.25 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의 인해전술



● 1951년 1월 1·4후퇴 당시 대동강 철교 위를 목숨 걸고 건너서 남하하는 평양시민들



● 일반동포에게, 대통령비서실(1950)
1950년 10월 이후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 지자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문이다. '천만 온 국민은 다 같이 일어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맹세로 뭉쳐서 노력한다면 세계 우방들의 응원이 강해질 것이니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전진해서 중공군을 물리치자'는 당부 내용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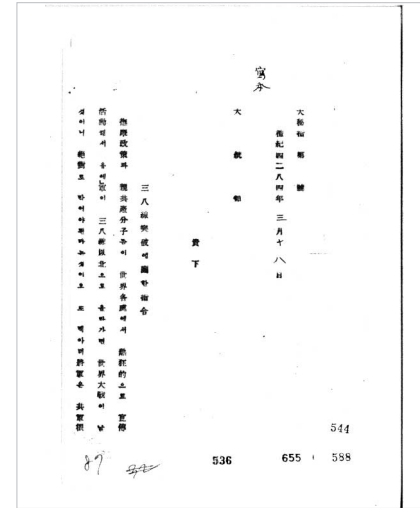
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8군의 재공격 준비가 완료되자 '11.24 최종 공세' (일명 크리스마스 공세)를 명령하였다. 이때 전선의 상황은 12개국의 유엔군이 참전 중이었고 정주-영원-장진호-혜산진-합수-청진선을 점령하여 한·만 국경선을 지척에 놓고 있었다. 하지만 유엔군은 이번에도 중공군의 2차 공세(1950.11.25~12.24)에 맞부딪쳐 큰 손실을 입었으며 11월 30일을 기하여 모든 부대가 무질서하게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비로소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반격을 개시한 지 71일 만에 철수 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철수에 철수를 거듭하였다.

1·4후퇴의 위기를 넘기면서 아군은 37도선에서 간신히 전선의 안정을 기하였으나, 중공군의 연속적인 공세에 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중공군의 몇 차례 공세를 계기로 한국 국민들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숙한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가 스스로 들고 일어나 힘을 보태려고 했으며, 정부는 100만 청년을 무장시켜 중공군을 격퇴시키려 하였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반격 직후 4차 공세(1951.1.27-4.21)를 단행하여 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유엔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회복하여 3월 15일 서울을 탈환하고 여세를 몰아 3월말에 38선을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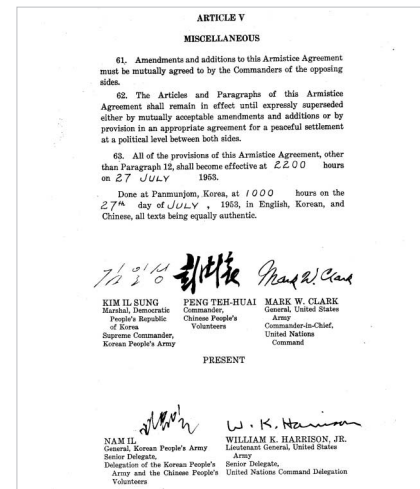
중공군은 공격 개시 직후 한계점이 노출되고, 미국 역시 내부적으로 정전 압박을 받아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엔군 측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선에서 밀리게 되자 1950년 말경부터 내부적으로 정전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 어느 쪽에서나 위협한 반격보다는 안정적인 봉쇄나 현상 유지 정책이 타협안으로써 힘을 얻고 있었다.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커지자 영국을 비롯한 참전국들 사이에서 전쟁 이전의 원상회복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자는 휴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전선 교착 및 휴전... 승자도 패자도 없이 멈춰진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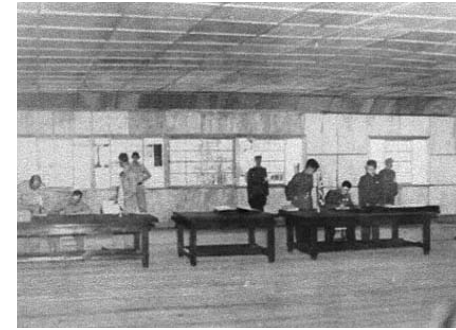
유엔군과 조·중 연합군은 1951년 6월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중공군의 5차 공세가 종료될 무렵



● 38선 돌파에 관한 지령, 대통령비서실(1951)
38선 돌파를 지시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령문이다. 이 문서에는 "대한민국 국군원수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에 지시하는 바이나...기회 있는 대로 밀고 올라가서 38선을 타파시킨 뒤에는 흑 맥아더 장군이나 릿지웨이 장군이 지휘를 불복한다는 말이 있을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대답할 것이므로, 우리가 정신과 군사상으로 절대 준비해서 38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야만 될 것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휴전협정문, 경무대, 1953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팡덕회(彭德懷)가 체결한 휴전협정문이다. 협정문 전문에는 정전 조건 및 규정 준수 사항,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쌍방 관계정부들에 대한 건의 내용이 있고, 부칙에는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다.



● 판문점에서 UN 대표 해리슨 중장과 북한 대표 남일 대장 사이에 휴전협정을 조인하는 광경



● '통일 없는 정전은 절대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결기대회 모습

인 1951년 6월 3일 조지 케난이 휴전을 위한 미·소 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6월 23일 조·중 연합군 측이 유엔 주재 소련대사 말리크를 통해 호응함으로써 정전회담 개최에 합의하게 되었다. 군사적인 승패가 아닌 정치적 타협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에 들어갔다.

양측은 최초 휴전 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비롯하여 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정, 전쟁 포로, 양측 관계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 등 4개 의제를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소 6주 정도면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회담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하였고 매 의제마다 장기간 설전을 벌였다. 대체로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야말로 휴전 천막과 전장 사이를 오가는 지루한 상황이 2년 여간 지속되었다.

휴전 협정 체결까지 양측은 38선상에서 피의 능선고지 전투, 단장의 능선고지 전투, 편치불 전투, 백마고지 전투, 저격능선 전투 등 수많은 고지 쟁탈전을 수행하였다. 주요 고지를 놓고 하루에도 몇 차례나 주인이 뒤바뀌는 혈전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과 비용 손실을 내었다.

그동안 휴전을 반대해온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8일 반공포로 2만 6천명을 석방시킴으로써 회담을 지지하고자 하였으며, 팡덕회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전회담 이후 가장 강력한 공격 작전인 '7.13 공세'를 취함으로써 한때 위기 국면을 맞기도 하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겪었고 '이승만 제거 계획'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휴전 협정을 묵인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군사·경제 원조, 그리고 한국군 증강 등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결과적으로 6.25 전쟁은 발발된 지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 측의 미군 대표가 휴전 협정을 서명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때 한국 정부는 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았다.



● 1953년 전쟁 고아들의 이발하는 모습



● 1953년 파괴된 서울역 부근 모습



● 1953년 육·해·공군 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상이장병들

전쟁이 남긴 것... 동족간 치러진 엄청난 전쟁의 결과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엄청난 전쟁 피해를 입었다. 군사 작전으로 인한 1차적 전쟁 피해와 이념 투쟁에 의한 2차적 피해가 중첩되었으며, 핵무기를 제외한 최신 살상 무기가 좁은 전장에 동원됨으로써 살상력을 더하였다.

우선 인명 피해에 있어,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78만 명이 전사·전상·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약 203만 명의 손실이 생겨 군인 피해만도 총 281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한 전재민의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휴전 때까지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났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의 1/2 이상이 전화를 입었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없었으며 전·사상자의 혈육과 이산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6.25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물적 피해도 인명피해 못지않게 컸다. 부산교두보를 제외한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37도선과 38도선 사이의 지역에서는 세 차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었다. 남한 제조업은 1949년 대비 42%가 파괴되었고, 북한은 1949년 대비 공업의 60%가 파괴되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 가옥과 재산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군사 작전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및 산업 시설이 크게 파손되었음은 물론 군사 시설로 전용된 학교 및 공공 시설도 파괴되어 국민 생활의 터전과 사회·경제 체제의 기반이 황폐화되었다.

또한 쌍방은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키거나 남·북 통일로 승화시키는데 실패하고 불안한 휴전 상태로 대치를 계속하게 되었다. 휴전 협정의 이행 관리 및 감독 기능이 마비되어 휴전이 언제 열전으로 바뀔지 예측을 불허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그러한 전후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한 강인한 정신력으로 인고의 한 세대를 지냈으며, 그것이 곧 복구와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다.

○○○ 웹 콘텐츠로 만나는 「6.25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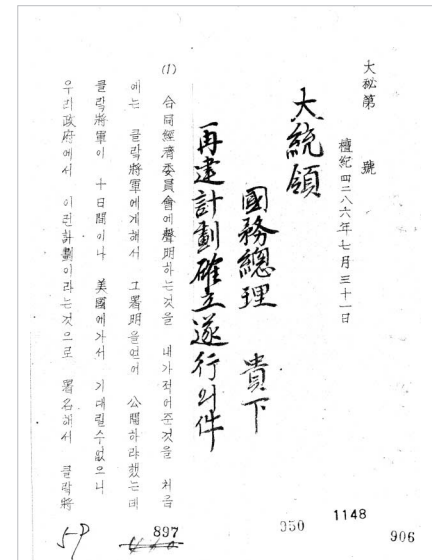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해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 및 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한 전쟁 관련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붓물 터지듯 쏟아져 전쟁 세대에게는 그날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고, 젊은층에게는 전쟁의 교훈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을 통해 6.25전쟁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취지로 6.25전쟁 관련 기록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나라기록 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 '토픽' 콘텐츠에 들어오면 「6.25 전쟁」기록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6.25 전쟁 관련 주요 기록물을 지식 정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기존에는 6.25 전쟁 관련 주요 기록물이 사안별 혹은 관심사별로 분류·선별되어 있지 않아 빠르고 손쉬운 접근 및 활용이 곤란하였고, 역사적 관점에서의 기록물 생산 맥락 정보와 내용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기록물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콘텐츠는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전쟁기의 사회상, UN 참전국의 활동상, 전쟁 결과, 전선의 변화, 전쟁 속의 통계 등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서·사진·동영상·우표·포스터 등 총 592건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문서기록물에는 전쟁 중에 생산된 국무회의록, 대통령 담화문·연설문·지령문, 군사·원조·휴전 관련 각종 조약·결의문·협정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필자 소개

연세대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에서 소장기록물 콘텐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재건계획 확립 수행의 건, 대통령비서실(1953)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6.25 전쟁 후 국가 재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1)원조금으로 우선 시멘트 공장(유엔 한국재건단)에 통보, 2)석탄 채굴에 힘써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무연탄을 발견하면 상금을 준다고 공포할 것, 3)만여 톤 배도 건조할 수 있게 선장(船廠)을 크게 만들 것, 4)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가르치는 여학교를 세울 것 등 재건 관련 15개 사항이다.